

‘퍼스트 펭귄’… 은행 3배 연 8% 고수익 추구

P2P 금융의 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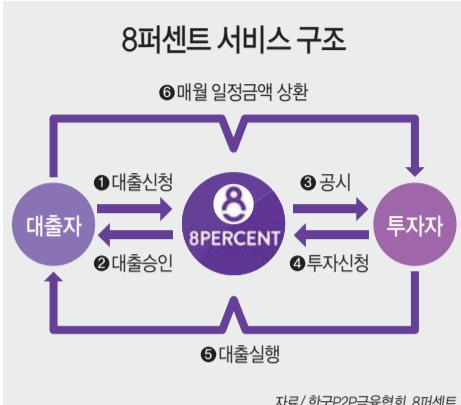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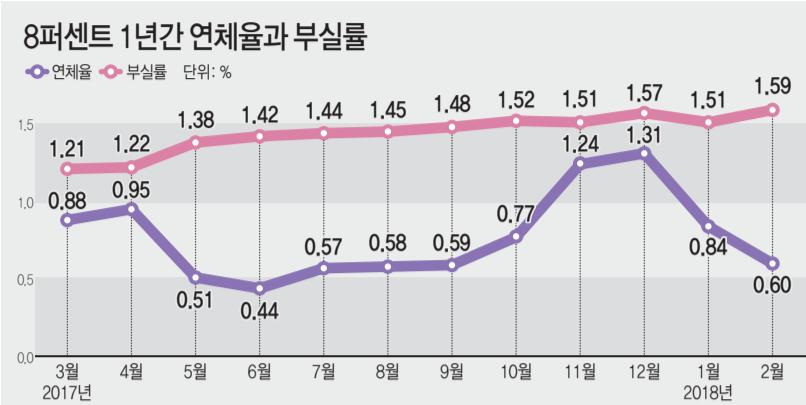
② 8퍼센트

6000호 상품 돌파 등 ‘1년’ 성과
월 손익분기점 도달 ‘흑자전환’

“초반에 8퍼센트를 알리는 것보다 P2P 금융을 설명한 적이 많았다.”

‘퍼스트 펭귄’으로 불리는 P2P 금융사가 있다. 바로 8퍼센트다. ‘퍼스트 펭귄’은 펭귄을 노리는 포식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먹잇감을 찾아 바다로 뛰어드는 ‘첫 번째 도전자’를 뜻한다. P2P 금융업에 첫 삽을 뜨며 존재감을 알려온 ‘8퍼센트’는 그래서 P2P 금융업계의 ‘퍼스트 펭귄’으로 불린다.

그러나 8퍼센트는 ‘처음’이란 그수식 어에 만족하지 않았다. P2P 금융의 효율적 대출 원가를 알리며 금융권 최저금리 보상제를 시작한 8퍼센트는 우수한 정



자료/한국P2P금융협회, 8퍼센트

보기술(IT) 조직을 기반으로 투자 채권을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연 8% 안팎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꾸준하게 연 8%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창업가 이효진 대표는 설립 당시 임신 3개월의 몸으로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 대표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KG이니시스, 캐스톤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그룹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초석을 다졌다. 이에 보답해 8퍼센트 투자자들은 8퍼센트를 선택하는 이유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를 꼽고 있다.

실제로 8퍼센트는 누적대출액이 1년 전 약 620억원에서 최근(2월 기준) 1140억원을 넘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연체율과 부실률은 평균 연체율 0.7%, 평균 부실률 1.4%를 기록하고 있다. P2P

금융협회 회원사 2월 평균 연체율(2.34%)과 부실률(2.4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8퍼센트의 꾸준한 노력은 최근 1년간의 성과로도 나타났다. 최근 6000호 투자상품을 돌파한 데 이어 와디즈,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2P 금융과 크라우드펀딩, 간편 송금을 알렸고, 심사모형을 고도화시켜 수익변동성을 최소화시

켰다.

또 월손이분기점(BEP)에 도달하면서 5년 후 목표였던 흑자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8퍼센트의 안정된 수익(연 8%)은 낮은 수익률일 수 있다.

이에 대해 8퍼센트 관계자는 “주식과 펀드 만큼의 고수익보다는 은행예금의 3~5배 수준의 수익을 꾸준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고 강조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 금융은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의 모든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효과적인 투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절한 투자로 얻는 수익은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유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대출·투자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대훈 은행장(오른쪽)과 김태완 선수가 응원메세지를 담은 책자와 스케이트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빙상 유망주’ 김태완 선수 격려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종구 본사에서 빙상 꿈나무 김태완 선수(해솔 중 2학년)와 가족을 초청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올해 1월 김 선수의 가족과 국가대표의 꿈을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응원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영상은 약 400만 명이 시청하고 7000여 개의 좋아요, 1400여 개의 응원 댓글이 게시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농협은행은 1959년 정구팀과 1974년 테니스팀을 창단해 스포츠단을 운영하며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 5월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김 선수를 5년간 후원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선수는 2016년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꿈나무대회 500미터 경기에서 41초76으로 국가대표 모태범 선수의 초등부 기록을 넘어선 빙상 유망주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국가대표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인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을 것”이라며 응원메세지를 모아 만든 책자와 한우·홍삼을 선물했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은행·증권 ‘원스톱’ 복합점포 오픈

순천시 연합종금센터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 연합종금센터’를 새로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는 총 51개로 늘었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복합점포를 올해부터는 권역별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라이브뱅크(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오픈기념 특판상품으로 일반예금 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을 가진 3개월 만기 특판DLB(파생결합사채)를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 또 연합종금센터 복합점포로 국내외 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웰컴 KB증권 주식입고 이벤트’가 5월 말까지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 ‘中企 수출 활성화’ MOU

환변동보험료 지원·단기수출 보험료 우대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종구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상호 주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료 지원 및 금리·수수료 우대를 실시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수출화대 및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리스크 관리 공동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수, 설명회 등 교육기회 제공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를 우대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19일 서울 종구 본점에서 ‘우리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이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보험료를

추가 20% 우대하고, 무역실무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양사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

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추진사업은 상반기 내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업무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체신화 기자 csh9101@

KEB하나은행 취약계층 금융부담완화 추진

KEB하나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으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KEB하나은행은 대표적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대학생 핫살론’ 등 기존상품은 물론 2018년 2월 8일 출시된 국민행복기금과 연계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 전환 대출인 ‘안전망대출’까지, 올해부터 매년 약 6000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금년 1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지원을 확대하

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전세론을 지난해 10월 출시했으며, 추가적인 주거 안정 지원 상품인 청년 월세론도 준비중이다.

임대주택시장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016년 임대주택 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지난해 8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울시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사회주택 및 공동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무서류, 무방문의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 상품인 ‘가칭’



‘편한 대출’ 출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으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맞춤서비스 제공하는 영업점 행복동행 금융창구를 운영하여 금융소외감을 줄이고 있으며, 기존 서민금융 상담창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금융 상담 외에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재무상담 지원으로 서민금융의 나들목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mho@